화요세평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유진
광주 문화재단 정책연구 교류팀장

언제부턴가 내게 "밥 먹었어?"에서 "식사하셨어요?"로 바뀌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밥은 원래적 의미로는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곡물을 이용한 모든 주식의 총칭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주식으로 먹는 밥의 의미가 단순한 요리의 명칭을 넘어서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배고픔 해소와 에너지 보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 섭취 즉 식사를 의미한다. 밥은 일상생활에서 격의 없이 주로 쓰이고 식사는 좀 더 상대방을 높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매일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을 얻는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런데 유독 나의 가족, 지인들은 내 안부를 물을 때면 제 때에 식사를 하였는지를 묻곤 한다. 아직도 무언가 바쁜 일이 있을때면 밥 먹는걸 후 순위로 하고 다른 어떤 상황에 몰입하는 나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내가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그 무언가에 몰입해 있을 때는 대부분 어떠한 예술이 매개된 상황 속에 있을 때이다. 음악과 함께이거나, 책을 보거나, 공연장에 있거나 전시장에서 나를 압도하는 예술작품 앞에 설 때면 식사 즉, 먹는 행위를 내적 풍요와 맞바꾼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영혼의 밥을 먹고 있는 셈이긴 하다.

예술을 음미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한결 부드럽고 풍요로워진다. 직장인이다 보니 퇴근 후엔 시간이 많지 않아 점심시간 틈틈이, 또는 주말에 시간을 낸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 까지라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예술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하다. 이럴 땐 차 안에서 이동하며 간단히 배고픔을 때운다. 이마저 시간이 안되면 한 끼쯤 건너뛴다. 그럼에도 예술은 분명 영혼의 밥이 되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하루 삼시세끼 문화가 일반화된 것도 근대화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에게 식사를 뜻하는 단어는 아침과 저녁을 가리키는 조석(朝夕)만 있었다. 19세기 중엽의 학자 이규경(李圭景(1788~1863))이 쓴 백과사전 형식의 책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낮이 길고 일을 많이 하는 음력 2월부터 8월까지 일곱달 동안만 하루 세끼를, 낮이 짧고 일이 별로 없는 9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 두끼를 먹는다"고 기록되었다. 늘 하루 세끼를 먹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동시대의 문화일 뿐이다.

"저는 예술을 잘 몰라요" "막막하네요", "전문지식이 없어요" 예술을 알아야만 이해해야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싶다. 다만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경험' 하기…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예술 또한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될 것이다.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반복해 관람할 때가 있다. 공연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연주자인데도 오늘의 연주가 다르고 내일의 연주가 다르다. 수많은 요소들이 연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날그날의 관객들의 반응은 더 좋은 공연으로 만드는 마지막 한 끗 차이다.

삶의 고비고비마다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나는 예술로 채웠던 것 같다. 예술이 내 삶의 일부였기에 '그래 내 삶이 아름다웠다' 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음악가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은 언젠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한다. "작곡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창작의 기쁨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생활 속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자기를 잊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창작의 기쁨은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문화예술향유의 기쁨 또한 그에 못지않다. 사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는 문화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도부터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 한해도 '몸=정신' 을 위한 두 가지의 식사를 하며 우리 재밌게 살아봐요.

"담에 밥 한 번 먹자" 보다. 지금 당장 "오늘 식사해요" 우리.

이봉철의 골프가 인문학을 만나다

유효수요의 스윙을 하라

〈11-2〉 케인즈의 골프 경영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자본주의를 이해한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플레이어 모두가 소비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라운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뜻일까? 매번 강자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소비라는 미덕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라운드의 경제활동 수준은 수요의 크기로 결정된다. 적정한 수요의 크기이다. 라운드의 불협화음은 수요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라운드는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경쟁이 심화된다. 강자는 수요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약자는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에 불협화음은 발생한다. 불협화음의 원인이 수요의 부족이라면, 그 해결책은 플레이어 모두가 수요를 늘리는 길뿐이다. 하지만 라운드에 있어 유효수요는 항상 부족하다. 원활한 라운드는 총수요에서 출발한다. 지출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지출은 플레이어 모두의 이익이 전제되어야 함이다.

고전적 경제이론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야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겠지만, 스트로크 게임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을까? 경쟁하는 플레이어의 개별 이익 극대화는 동반자 전체의 이익 극대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부족한 유효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관리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케인즈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한다. 스킨스 게임의 유효수요 이론이다. 스킨스게임에서는 강자이든 약자이든 플레이어 모두가 비용은 지출하려고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이 유효수요가 부족하더라도 라운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라운드의 유효수요는 스트로크 게임에서 약자의 지출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라운드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보완책이다. 라운드 시에 발생하는 공통비용의 지출은 스킨스 방식으로 플레이어 모두가 지출하는 유효수요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유효수요가 아닌 플레이어

모두의 유효수요를 말한다.

케인스의 유효수요의 원리는 최적의 라운드의 가치이다. 수요가 증대되면 공급도 늘어나야 한다. 비용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난다. 완전한 라운드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뛰따라야 할 것이다. 수요는 약자 혼자의 지출로 매워지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 모두가 지출하는 공급량으로 채워져야 한다. 라운드의 불균형은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저축의 역설이다. 저축은 고수에게는 미덕이겠지만 하수에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라운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운드의 불안정은 수입과 지출 간의 불일치의 결과물이다. 강자에게 수입은 약자에겐 지출이다. 매 홀마다 지출이 지속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약자의 멘붕상태는 강자에게도 좋은 결과는 아니다. 약자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다. 미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성 선호는 증가한다. 유동성은 어떤 게임의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적 동기를 선호하거나 예비적 동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투기적 동기로 할 것인가의 기로이다. 비기너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유동성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케인즈는 불확실성 아래서 의사결정은 관습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불안정성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플레이어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라운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플레이어는 당연하다는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케인즈는 사고의 유연성을 주문한다. 자신이 어떤 철석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확률이론과 객관주의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까지 그 모호성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골프칼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독자광장

'서민 3불' 보험사기 철퇴해야

사기 범죄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국민들의 삶의 의욕 저하 및 불안감 조성 초래한다.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3不 사기 범죄 중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단속하고 근절.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 입원 및 살인, 상해 등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먼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는 가해자. 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행위이다.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 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 상해, 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행위,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 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상향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이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행위이다. 다음으로 기타 요양보험, 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인데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 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위와 같은 범죄는 형법(사기)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절대 근절하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직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진병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2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진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0
논설실 (062) 720-1032
전산실 (062) 720-1033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판매국 (062) 720-1098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4 • 사회부장 010-6633-8826 • FAX (062) 720-1080~82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사설

정부 슬레이트 처리예산 대폭 늘려야

'1급 발암물질' 로 알려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아직도 전남지역에 산재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현재까지 23만8,632동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2만9,954동에 그쳐 전체량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전남지역 슬레이트를 모두 철거하는데 앞으로 50여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는 단연 예산 문제 때문이다. 전남도가 올들어서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9억원의 예산을 확보, 소규모 창고를 비롯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확대하려 하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처리단가를 놓고 지붕개량사업 실 수요자인 주민과 정부·자치단체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334만원, 취약계층 지붕 개선엔 427만원, 소규모 축사엔 127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은 지붕공사에만 한정된 것으로, 인건비와 철거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어서, 생활보조금을 뛰어넘는 자부담에 신청 자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에 전가하는 자부담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2030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완전 철거' 의 환경부의 목표 달성은 극히 회의적 일 수 밖에 없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을 유발,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된 지 오래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주민 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대책 세워라

겨울방학 결식아동들의 끼니 해결을 위한 대책이 허술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13일 광주시내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겨울방학 결식아동들의 점심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꿈자람카드' 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자치구 및 동간 가맹점이 편중돼 있어 아이들이 원활한 식사를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꿈자람카드 가맹점이 많은 곳은 20여곳 있으나 없는 곳은 아예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 상무 1·2동의 경우 가맹점이 21곳에 달하고 있으나 양3동은 가맹점이 전무한 상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광산구 운남동의 경우 가맹점수가 15곳에 달하는 반면, 광산구 삼도동과 임곡동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가맹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카드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아이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는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지역별 가맹점수 차이가 큰 이유는 업소들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다. 가격 등 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가맹점 신청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소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금 현실화와 함께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에서만 '꿈자람카드' 를 이용하는 아동이 7,866명에 달한다. 반면 가맹점수는 동구 80개소, 서구 282개소, 남구 185개소, 북구 403개소, 광산구 416개소 등 천차만별이다. 더욱이 같은 구 내에서도 편차가 심각하다. 카드가 주어 졌음에도 가맹점이 없어 식사를 못하거나, 먼 길을 가야 한다면 제도의 취지는 상실된 것이다. 자치구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만연한 안전불감증' 꼼꼼히 살펴야

기자수첩

고광민
사회부 차장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규모 폭발사고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도 광양제철소의 미흡하고 안일한 안전대책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공장 인근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 직원 A씨(54)가 무릎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폭발사고다.

포스코는 연이은 사고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조 1,050억원을 투자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사고는 예방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양제철소 내부에선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적인 철강 브랜드인 포스코가 안전경영의 기본이라는 산재 사고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포스코의 '안전하고 행복한 위드 POSCO(Safety With POSCO)' 문구가 무색하다는 표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안전불감증은 비단 광양제철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 수준이고, 또 어디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진행형이다.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도 그때뿐이다.

심지어 안전대책과 관련한 법규는 지키는 게 이상할 정도다. 부실공사와 부실관리, 늑장대처 등 반복되는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기본을 지키고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터지면 또다시 호들갑이다. 미흡한 안전의식이 불러온 총체적 문제임에도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안전사고 위험을 알고서도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더 이상 발생치 않아야 한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 등은 처벌을 강화하고, 우리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생활화가 절실하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꼼꼼히 살필 일이다.